



안전하고 포용적인 AI·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4개 기관이 앞장선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기반 구축 등 공동 협력 추진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과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고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근 AI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 아래, 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 및 역량 제고,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4개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혁신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는 AI·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과 여성 등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 향후 4개 기관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과의존 예방을 위한 AI윤리·안전 제도 정비,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AI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과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동의 목표와 책임의식 아래 실질적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 협약식 이후 기관장들은 청소년시설을 둘러보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살펴보았다. 3D 프린팅 체험 중인 청소년들을 만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상 속 변화와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아실현의 장이자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미디어의 역할이 AI 기술로 근본적인 변곡점을 맞이하였다”고 말하며,
-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 온라인상의 청소년 보호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적극 지원하여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업체계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 실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의 빠른 발전과 확산에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청소년 보호, 교육, 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 “오늘의 협력을 발판 삼아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AI 시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다.”라고 말하며,
 -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협약식 및 현장방문 개요
2. 업무협약서

담당 부서 < 공동 >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02-2100-6061)
		담당자	서기관	박혜원 (02-2100-60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조경옥 (044-202-4420)
		담당자	사무관	김혜경 (044-202-4424)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정일선 (044-203-7112)
		담당자	사무관	전향실 (044-203-71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정섭 (02-2110-1320)
		담당자	사무관	박영희 (02-2110-1321)



□ 개요

- (배경) AI 대전환 환경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포용적이고 안전한 AI·미디어 생태계 조성 및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 협업체계 구축
- (일시/장소) 3. 26.(목) 10:00~10:45 / 가재울청소년센터(서울 서대문구)
- (참석) 부총리, 교육부 장관, 성평등부 장관, 방미통위 위원장 등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20	20'	【 협약식 】 · 개회 · 인사말(각 기관장) · 업무협약 서명 및 기념촬영 · 폐회	장소 : 4층 D스테이션
10:22~10:42	20'	【 시설 라운딩 】	-
10:45	-	행사 종료	-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미래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 무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네 기관”이라 한다)의 상시적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디지털·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포용적이고 안전한 AI·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네 기관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안전한 AI·과학기술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AI 윤리 인식 확산, SNS 과의존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한다.
2. 학교, 청소년시설, 교육인프라 등을 통한 AI·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 및 체험 기회 확대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학생을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AI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에 협력한다.
3. AI 서비스의 성별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등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대표 AI모델의 성능 및 안전·신뢰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지원에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4.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성범죄물 조기탐지 및 차단 등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 예방교육 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5.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유입을 확대하고, 경력유지와 성장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정책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6. 기타 현안 대응을 위해 네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시 협력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네 기관은 제2조 사항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하며, 추진 사항 상시 공유 및 상호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제4조(자료의 공유) 네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비밀유지) 네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외 사용하거나 각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6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의 변경·해지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네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는 네 기관장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6년 3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 배 경 훈



교육부

교 육 부
장 관 최 교 진



성평등가족부

성 평 등 가 족 부
장 관 원 민 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 종 철